

## 강원도

## 영월군, 축산분야 육성 24억 투입

강원 영월군이 올해 축산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한우 축산물생산 지원 등 33개 사업에 모두 24억여원을 투입한다.

톱밥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4억여원을 투입하고 소 10두와 돼지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1만3330㎥를 지원한다. 또 1억여원을 들여 한·육우 10두와 돼지 100두, 닭 500수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와 해충발생 저감제 20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산 조사료 생산·제조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청보리와 호밀 등 겨울철 사료작물 및 옥수수과 수단그라스·갈대 등의 여름철 사료작물을 이용해 랩사일리지를 제조하면 실적에 따라 제초비 2억7000여만 원을 투입한다.

가을 파종용 조사료 종자 구입 실적이 있는 조사료 경영체에게는 조사료 종자대와 강원도 산 가축분 퇴비 구입비·경운작업비 등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서 이상 기온 등에 따른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게는 화분과 소초광 1억2000여만원을 지원해 우량 봉군 육성을 통한 양봉농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및 쇠고기 이력제 가입 암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번식암소 2000두 배합사료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

## 태안군, 올해 축산분야에 48억원 투입

충남 태안군이 축사시설현대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나서기로 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군은 올 한해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총 25개 사업,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산업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우선 군은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축사환기시설(1억원) ▲자동목걸이(스텐천) 지원(1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1억6000만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1억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소 사육농가 육질개선제 지원(2억 4000만원) ▲젖소 농가 헬퍼 지원사업(6200만원) ▲젖소 고온면역 증강제 지원(1600만원) ▲한우사육농가 거세장려금(7000만원) 등의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특히 군은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 등 조사료 관련 9개 사업에 18억7300만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군은 축산농가의 쾌적한 환경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악취 저감용 미생물 배양시설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억7300만원을 투자한다.

군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은 물론 태안 한우의 고급화로 축산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청북도

### 충주시, 친환경 축산농가 대상 장비 지원

충북 충주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에 축산장비를 지원한다.

이번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친환경 축산 참여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친환경 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3억2천만 원을 들여 축사 및 가축사육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한우 및 육우는 30두, 젖소 30두, 돼지 500두, 닭 1만수, 오리 5000수 이상 사육농가로 총 80농가다.

시는 축사 내 환기팬, 스탠존(보정틀), 리플급수기, 개체관리 CCTV 등 축사 내 필요한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해 1농가당 최대 4백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사양관리, 품질 고급화, 가축질병예방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축산물의 고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상북도

### 경주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경북 경주시는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과 축사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과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목적으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말 등 16개 축종 123호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농가보험료 3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의 75%인 225만원(국비 지원분인 150만원은 보험 가입 업체에서 자동 정산됨)을 지원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억69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화재 등 재해발생이 높은 양돈 및 양계농가를 비롯해 지난해 가입된 농가 중 갱신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보장내용은 태풍, 대설,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가축이나 축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와 화재, 사고,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이며 축사보상은 적법 축사건물(축산 시설)에 한정된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중앙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부담해 추진했으나 농가부담이 매우 높아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비 25%를 추가 지원해줌으로써 보험 가입 농가가 늘어나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주시는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전남도는 가축 사육환경개선 및 축산업허가

제 시행에 대비해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소·돼지·닭·오리·흑염소·사슴·꿀벌 사육농가로 준전업농(전업농의 1/3) 이상~기업규모(전업농의 3배) 미만은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다.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동물복지형축산농장인증, 방목축산 농가는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 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한육우는 사육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축사 개보수에만 지원하나 환경규제 및 마을 내·도로변에 위치해 인근 민원 등으로 축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할 때 동일 면적까지 지원된다.

또한 전업농 미만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까지 면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 축사 이전은 물론 축사 내부시설 및 축사 외부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지원된다.

축산업 등록면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경우 농가당 최대 한육우 3억 원, 낙농 4억 원, 돼지 12억 원, 산란계·육용종계·종오리 11억 원, 육계·육용오리 8억 원, 흑염소·꿀벌·사슴 2억 원, 닭·오리 부화장은 13억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사업의 경우 한육우 4억 원, 낙농 5억 원, 돼지·산란계·종오리 50억 원, 닭오리부화장·육계·육용종계·육용오리 30억 원, 흑

염소·꿀벌·사슴은 7억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해남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강화

전남 해남군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강화에 나섰다.

이는 올 겨울 유난히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충남 서산의 천수만과 금강지역의 생태환경 변화로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 떼가 산이면 금호호로 곧바로 내려옴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전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군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 군, 읍면에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천암, 금호호의 철새도래지, 저수지, 소하천과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 등에 정기적인 예찰과 축사 출입통제 표지판과 통제띠 설치하여 출입자를 통제토록 하는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관내 가금류 사육농장 40개소에 농장별 책임 담당제를 지정하여 임상예찰은 물론 소독실시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축사 소독약품 2,500kg을 공급하여 농가 자율방역 실시와 병아리 입식 전에는 반드시 깔짚을 교체하고 기계 장비 소독을 당부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4060, 군청 가축방역담당(061-530-5425)으로 하면 된다.

## 전라북도

###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82억원 지원

전라북도는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농림수산사업으로 추진중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2013년도 지원계획을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으로 2013년도에 총 58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도 확보액 513억원의 13.5%를 증액 확보한 것으로 도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신청 대상은 축산업등록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농가로 한육우, 돼지, 닭, 오리, 젓소, 흑염소, 꿀벌 등을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1. 12. 31일 이전 축산업등록 농가이며, 지원방식은 축산업등록면적에 따라 보조지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며, 지원방식은 보조방식과 이차보전방식으로 구분한다.

동 사업 추진시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차량소독시설, 대인소독기, HACCP인증 등의 의무화로 구제역·시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m<sup>2</sup>당 지원 상한액과 보조방식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등 지원조건 변동사항이 많은 만큼 시·군청 또는 읍·면·동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사업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희망 농가는 각종 축산교육 이수증명, 정부포상(상장)내역, 축산업 등록사항,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등 지원요건 확인과 선정기

준표 작성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기한인 오는 2월 20일 이전에 사업장 소재 시·군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정성 검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허창현)는 올해 총 10개 검사사업에 3억4500만원을 투입,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축(소, 말, 돼지, 닭) 및 식용란에 대한 항생제 및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항목과 규제검사 물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을 꼭 준수토록 농가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합성 검사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에 따른 도내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확인검사와 한우쇠고기 판별검사, 원유 위생등급 검사, 식육중 미생물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